Friday Refresh 2009-12-04 no.525

신화, 세상에 답하다

신화, 세상에 답하다
김원익 | 바다출판사

변하지 않는 인간본능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을 인간본능이라고 한다면, 모성본능, 자기방어본능, 생존본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 신화가 늘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신화에는 이러한 본능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리스 신화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닮았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성정은 인간이 지닌 성정과 다를 바 없다. 인류의 삶과 문화가 모두 들어있다. 이 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신화에 녹아있는 원형적인 모티프를 끄집어내어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모티프는 현대문학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전형들이라서 더욱 관심을 끈다.

영웅들의 출생의 비밀은 주로 아버지 찾기로 이어진다

영웅의 출생의 비밀은 특별한 뭔가가 있다. 고구려 시조인 주몽의 아들 유리는 어렸을 적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 저자는 인간이 출생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발로라고 설명한다. 자신의 출생과정을 알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고, 자신의 출생과정을 확실히 알게 되면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또 공동체 의식과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자각한다고 설명한다. 이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일은 정체성을 찾으려는 원초적 욕망이다. 아버지 찾기는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코스이며, 인간의 원형적인 행동양식이라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아버지 찾기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성이 사라지는 이유로 설명한다. 가부장제가 약화되면서 아버지만이 가정의 수호자가 아니며, 그 역할을 어머니가 대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공고했던 가족이라는 유대감이 약해지거나 깨어지는 일들이 빈번하면서 아버지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사라졌다는 점이다. 요컨대 오늘날의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줄어들면서 아버지의 공간과 시간이 아이들의 공간이나 시간과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이다.

사랑은 어디까지가 죄인가?

'팜므 파탈'은 '치명적인 여인'이라는 뜻이다. 만나는 남자들을 모두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여인을 일컫는다. 사랑에는 팜므 파탈처럼 상대를 파멸로 밀어내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눈물겹게 슬프고 아린 사랑, 아름다운 사랑도 있다. 때로는 비극적 사랑이 더 아름답게 비쳐진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그런 유이다. 그리스 신화에도 피라모스와 티스베의 처연한 사랑이 있는가하면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사랑 같은 비극적 사랑도 있다.

사랑에는 질투도 따르게 마련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정실부인 헤라는 질투의 화신으로 등장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질투를 부리는 것은 언제나 여자 쪽이다. 남자는 여자의 질투 때문에 화를 당하거나 시련을 당한다. 남자들이 벌이는 권력투쟁, 미다스가 부린 탐욕도 일종의 질투라고 할 수 있다. 질투는 여자뿐 아니라 남자의 기본 특성이며, 모든 인간의 본성이다.

사랑에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비정상적 사랑도 있다. 근친상간과 간통이 그런 예이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주요 연구대상이 되었듯이 근친상간은 인간의 원초적 욕구로 볼 수 있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이 그 대표적인 예로 인용되고 있다. 근친상간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종족 보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근친상간과 잘못된, 또는 어긋난 사랑으로 인한 근친상간이다. 전자는 그런대로 정당화되지만 후자는 결국 비극적 결과를 맞는다.

그리스 신화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간통의 예는 얼마든 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여자의 간통은 도덕적인 단죄의 대상이지만 남자의 간통은 낭만으로 생각하는 사회의 풍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양한 인간군상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스 신화 속 인간이 벌이는 복수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신이 마지막에 조정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질 것을 암시한다. 그리스 신화,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나 비극에서는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 마지막에 신이 나타나 해결해 준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기계장치의 신"이라고 부른다.

영화이자 고전인 《오만과 편견》을 들 수 있다. 결국 오만으로 빚은 편견을 깨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작품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오만에 대한 처벌은 가혹하다. 오만을 부린 자는 소중한 것을 모두 잃어버리거나 목숨을 잃는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금기는 모두 깨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기를 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금기는 어떻게든 깨지고 말지만 금기를 깬 당사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신화는 보여주고 있다.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신은 인간에게 가끔 희생물을 요구했다. 이때 인간을 대신해 희생당하는 동물이 순종을 상징하는 희생양이다. 그래서 희생제의는 인류의 오랜 관습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희생당하는 쪽은 여성이지만 간혹 남성들이 희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 속 여자들의 희생은 초라하고 볼품없으며 강요당하지만, 남자들의 희생은 장엄하고 숭고하며 자발적이다. 희생양의 전통은 뭔가 사회적으로 방어가 필요할 때 내세우는 면피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유지되고 발전되어간다.

인간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

그리스 신화에서 '황금 손을 가진 미다스 왕'은 무엇이든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한다. 욕심 많은 미다스는 굳이 황금이 없어도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더 많은 부를 원했다. 그는 돈을 많이 벌 생각만 했지 벌면 벌수록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의 주인공 바흠도 미다스와 비슷한 인물이다. 순진했던 그가 기름진 땅들을 차지하기 위해 지나친 욕심을 벌이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은 탐욕의 결과는 불행이라는 등식을 보여준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속담대로 미다스는 살아남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그 운명을 타고나야 되는 것 같다. 탐욕은 악마의 달콤한 유혹이다. 어떻게 보면 형제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도 욕심에 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려면 때로는 삶의 도피처가 필요하다. 그러한 인간의 갈증을 해갈해주는 것이 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술을 마시는 데는 모두 이유가 있다. 그리고 술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자칫 하면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악마의 선물로 변하기도 한다. 술은 헤라와 헤파이스토스를 화해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때로는 주사를 부려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기도 했으니, 주사의 원조는 오리온과 켄타우로스 족이라 할 수 있다. 술의 수호신은 디오니소스인데 이는 인간 세상에서 아주 환영을 받는 최고 인기의 신이 되었다. 지금도 주교를 믿는 신도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말이다.

변해야 살아남는다는 명제

알파걸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 댄 킨들런은 알파걸이 출현하게 된 사회적 배경의 주요인으로 새로운 법과 사회 정책들이 여자에게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알파걸의 원형은 그리스신화의 아마존 족을 들 수 있다. '아마존'이라는 말은 '가슴이 없는 여자', '무장을 아주 잘한 여자',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 '남자에 적대적인 여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고대의 알파걸 아마존 족과 아탈란테는 현대의 알파걸과 많은 부분에서 닮은꼴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그들은 모두 "독립, 자주, 자립, 야망, 능력, 도전을 느끼고 몰두해 보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고 한다. 단 고대의 알파걸은 남성에 대해 배타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이라면, 현대의 알파걸은 관계 지향적이고 평화적이라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알파걸은 일종의 여성의 변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변신의 유형은 네 가지로, 우선 주인공이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변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변신으로 아네모네의 예, 잘못에 대한 벌로 인한 변신, 신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변신을 들 수 있다. 신화 속에서 변신하는 대상은 동물이나 식물로 나타난다. 카프카의 작품 <변신>으로 잘 알려진 변신의 모티프도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다.
변신도 인간의 원초적인 열망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새로운 변신을 원하고, 변신을 시도한다. 하지만 변신도 변신다울 때 행복을 가져다준다. 해모수, 석탈해, 김수로 왕, 제우스의 경우처럼 능동적이며 건설적이어야 한다고 저자는 적고 있다.

신화는 인류와 함께 지속된다

우리가 고전이나 현대문학작품에서 접하게 되는 주요 모티프들은 이 책에서 소개한 범주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실생활에서 얼마든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다. 사랑, 우정, 질투, 출생의 비밀, 납치, 희생, 복수, 간통, 근친상간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모티프들은 주로 그리스 신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 모티프들은 인류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인류와 함께 할 것이다. 신화의 모티프들은 인간본능이기 때문이다.

최복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저자, 수필가)